25호 - 주체91(2002)년 5월 9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한 힘 있는 과시

지난 10년간 평양선언에 세계 258개 정당이 서명, 선언리행을 위한 투쟁 활발히 전개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발표된 때로부터 10년이 된다. 주체81(1992)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여러 나라의 공산당, 로동당을 비롯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당수들과 대표들은 쌍무적 및 다무적접촉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전진시켜 나갈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력사적인 평양선언을 채택하였다.

사회주의가 인류의 리상임을 확인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 그 숭고한 목적과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힌 평양선언의 발표는 세계사회주의운동력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오게 한 거대한 사변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하여 일시 가슴 아픈 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위업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그러나 20세기 말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됨으로써 사회주의의 전진도상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세계 수많은 나라의 공산당, 로동당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을 잃고 좌왕우왕하였으며 지어 어떤 당들은 사회주의 리념을 포기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바로 이러한 때 력사적인 평양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사회주의운동안에서의 혼란상태는 정지되였으며 세계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은 새로운 투쟁의 무기를 받아안게 되였다.

선언은 지난 10년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과 인민들속에 급속히 파급되였으며 우리 시대의 혁명적변혁과정에서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였다.

평양선언의 견인력과 생활력은 그에 서명한 정당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 난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선언이 채택될 당시 그에 서명한 정당이 70개였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258개에 이르렀다.

국제공산주의운동초기에 투쟁강령으로 되였던 ≪공산당선언≫이 발표될 당시 그에 서명한 당이 몇개에 불과하였고 코민테른에 망라된 당은 처음 20개로부터 20여년이 지난후에야 60여개로 늘어 난 사실을 놓고 볼 때 평양선언의 견인력과 파급력은 전례 없는것으로 된다.

여러 나라의 진보적정당당수들과 대표들은 평양선언의 가장 큰 의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살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있을것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엄숙히 천명한데 있다고 하면서 선언을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운동의 재건과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앙양을 선포한 전투적강령≫, ≪국제혁명운동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거대한 사변≫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선언의 채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공적이라고 격찬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계정치의 중심에 서 계시기에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평양선언은 거기에 담겨 진 리념의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세계혁명적당들의 투쟁의 기치로 되고 있다.

아일랜드공산당, 벨지끄로동당, 스웨리예맑스-레닌주의공산당(혁명가), 방글라데슈로동당, 네팔공산당(통일중앙), 민주꽁고로동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에서는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당강령과 당규약, 당내기본문건들을 전반적으로 새로 작성하고 정치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선언을 당대회공식문건으로 첨부하는 등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헌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적당들이 재건되고 사회주의재생을 위한 투쟁이 광범히 벌어지고 있다.

선언발표이후 불과 1~2년사이에 사회주의가 좌절된 동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산당, 로동당들이 재건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벨라루씨공산주의자당, 우크라이나공산주의동맹, 몰도바사회주의당, 벌가리아공산당(맑스주의자),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로므니아 새 사회당, 뽈스까공산주의자동맹 ≪프로레타리아트≫를 비롯하여 새 출발을 선포한 당들은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체제붕괴원인을 심각히 분석하고 교훈을 찾은데 기초하여 사회주의재생을 기본임무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다.

이 과정에 로씨야에서는 로씨야련방공산당을 모체로 하고 200여개의 정당, 단체가 망라한 인민애국동맹이 결성되였으며 그루지야에서는 쏘베트정권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쏘베트≫가 조직되였다.

한편 여러 나라의 공산당, 로동당들과 진보적정당들은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내의 모든 좌익력량과의 단합을 이룩하고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각국 공산당, 로동당들과 진보적정당들사이의 국제주의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도 힘 있게 벌어 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현 정세와 정당들의 과업에 관한 아프리카지역 국제토론회, 동유럽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의 당건설과 관련한 국제토론회,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서유럽지역 정당들의 토론회를 비롯하여 지역별, 대륙별로 국제토론회와 회합들이 근 50차에 걸쳐 지행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력사적인 평양선언이야말로 세계혁명적당들과 진보적인류를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고귀한 리정표로, 불멸의 홰불로 되고 있음을 힘 있게 증시해 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제아무리 훼방하며 력사의 흐름을 되돌려 세우려고 발악하여도 인류의 리상이며 과학인 사회주의는 평양선언의 기치 따라 영원히 전진하며 승리할것이다.

노동신문 4월 21일

2 종합
- 유럽지역토론회 참가자들이 편지
- 장편소설 ≪열병광장≫을 창작완성
-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맥박치는 구호
- 핵장착요격미싸일개발에 대응책 세울것
- 미제는 극악한 침략자, 략탈자, 살인마
- 일본총리에게 보내는 항의편지
-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공동성명

4 노작
-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3)

6 세기와 더불어
- 8장 1절 이광 (2)

8 칭송
- 나는 근로하는 인민의 심부름꾼이다
- 또다시 노래하노라 우리의 붉은기 (5)

9 노동신문사설
-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크나큰 담력과 강의한 의지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12 한국민족민주전선
-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 성공적으로 개최하자
- 하나
- 자주통일의 길은 주체성, 민족성 확립에 있다

13 투쟁보도
- 청와대,신문고 통한 민원제기 가로막아
- 사회 단체들 민주화 운동 매도 중단 촉구
-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출범
- 박원홍의원 발언에 노사모 반발
- 38개 단체, 유권자대회 개최
- 자치연대, 지방선거에 약190명 출마

15 운동강좌
-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4)

김일성주석님을 흠모하는 삐라 서울시내에 배포

지난 5일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칭송하는 전단 80여장이 뿌려져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가로 7.2센티미터, 세로 9.8센티미터 크기의 이 전단 앞면 윗부분에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진이 모셔져 있고 밑부분에는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칭송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단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경향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 그것을 본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켰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5월 7일

유럽지역토론회 참가자들이 편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단마르크의 쾨펜하븐에서 진행된 오늘의 조선과 자주성에 관한 유럽지역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편지를 드리였다.

편지는 이번 유럽지역토론회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 올리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세계사적업적을 깊이 연구하고 유럽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주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자기들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자주적신념, 주체성을 더욱 철저히 세워 나가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하였다고 편지는 지적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일**각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집요한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회주의의 강력한 보루로 다지시였으며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주도해 나가고 계시는데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그이께서 계심으로 하여 자주화된 21세기의 휘황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표명되였다고 편지는 지적하였다.

자기들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자주위업의 성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옹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련대성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나갈것이라고 편지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7일

장편소설 ≪열병광장≫을 창작완성

조선의 4.15문학창작단에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열병광장≫을 창작완성하였다.

작품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광복직후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며 주체의 첫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신 불멸의 군건설령도업적을 형상하고 있다.

주석께서 몸소 평양학원을 창설하시여 정규무력의 핵심골간을 키우시고 병기공업기지를 창설하고 새 조선의 첫 항공대를 무으시는 등 각 군종, 병종들을 조직하기 위해 바치신 불멸의 로고는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 주고 있다. 소설에는 주석께서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것이 총이라고, 그 총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실려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혁명전사들을 총대관이 바로 선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시는 감동 깊은 이야기도 담고 있다. 또한 주석의 건군위업을 충성으로 받들어 가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형상도 감명 깊게 펼쳐 보이고 있다.

소설은 주체37(1948)년 2월 열병광장에 울려 퍼진 환호성이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전인민적칭송의 분출이라고 쓰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5월 7일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맥박치는 구호

≪로동신문≫ 7일부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에 맥박치는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라는 제목의 론설을 실었다. 이 구호는 조선혁명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나온 구호로서 여기에는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충성으로 받들어 온 조선의 ≪고난의 행군≫사가 함축되여 있다고 론설은 강조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이 구호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심이 힘 있게 맥박치고 있으며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움없이 자기가 선택한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가려는 조선인민의 백절불굴의 의지가 담겨 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구호에는 또한 고난과 시련이 겹쌓일수록 정서와 랑만에 넘쳐 살며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혁명적락천성이 차넘치고 있다고 론설은 지적하였다. 론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조선인민의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은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의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조선인민의 랑만과 열정은 몇배로 더 강해 졌으며 노래와 춤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였다. 조선혁명의 앞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며 그 길에서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을 겪을수도 있으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이의 두리에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힘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조선중앙통신 5월 7일

미국의 핵장착요격미싸일개발에 대응책을 세워 나갈것이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핵탄두를 장착한 요격미싸일의 사용가능성을 운운하는 등 첨단군사장비개발과 연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로동신문≫ 7일부는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일뿐아니라 핵군비경쟁을 막고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새 세계를 지향하는 인류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라고 단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미국의 호전세력들의 시도는 새 세기에 기어이 핵전쟁을 도발하려는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의 호전집단은 이미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핵선제공격대상국으로 7개 나라를 선정하였다. 그중에서도 조선을 첫째가는 핵공격대상으로 지목하였다. 미국의 호전계층이 조선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타격목표로 지목한데 이어 핵장착요격미싸일개발에 달라붙고 있는것은 심상치 않다. 이것은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조선을 겨냥하여 핵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새로운 핵무기를 비롯한 첨단무기개발에 발광적으로 달라붙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도 그에 대응한 대책을 세워 나가지 않을수 없다. 선택권은 미국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적우위를 차지하고 다른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오산이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사고관점을 시정하고 현실을 랭철하게 보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5월 7일

미제는 극악한 침략자, 략탈자, 살인마

≪로동신문≫ 7일부는 미제는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극악한 침략자, 략탈자, 살인마라는데 대하여 폭로한 글을 실었다. 글의 필자는 침략과 략타은 미제의 본성이고 기본존재방식이며 야수성은 그들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1945년 9월 남조선에 기여 든 미제는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적점령지대로 선포하고 군정을 실시하면서 남조선의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틀어 쥐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를 자기들의 침략적목적에 철저히 종속시켰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제가 감행한 한차례의 조선침략전쟁은 그러한 침략정책의 직접적산물이였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은 오늘에 와서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우리를 ≪악의 축≫이니 뭐니 하면서 터무니없이 걸고 드는 부쉬패당은 조선을 핵무기사용대상으로 지정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계획을 실천에 옮기려고 발광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원조자≫가 아니라 가장 탐욕적인 략탈자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지난 반세기동안에 자본투자, 무역에서의 부등가교환, 잉여농산물강매, ≪원조≫와 ≪차관≫ 등을 통하여 무려 수천억딸라를 략탈해 감으로써 강도적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놓았다. 미제는 군사기지와 시설, 군사훈련장리용 등으로 남조선의 땅과 바다까지 강탈하였다.

글은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보호자≫가 아니라 악독한 살인마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에 의하여 감행된 대중적학살만행들과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치 떨리는 살인만행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폭로하였다.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빼앗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되찾을수 있다고 하면서 글은 모두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내고 민족의 완전자주독립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6일

일본총리에게 보내는 항의편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 참가자의 편지

고이즈미 쥰이찌로총리 앞

우리들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민간단체대표들과 인사들, 구일본에 의한 피해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를 진행하고 당신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본 토론회에서는 지난 세기 구일본이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감행한 죄행들이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중대한 반인륜적범죄로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으며 따라서 일본당국은 시급히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토의되였다.

당신도 아는바와 같이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는 오늘 비로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과거죄행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피해국들에서 뿐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비정부단체들에서 엄중히 론의되고 그의 조속한 해결을 일본당국에 요구하여 온 국제적인 미해결문제이다.

물론 일본당국이 과거의 진상에 대하여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지난 세기 피해국들에서 감행한 민간인학살과 략탈, 강제련행과 강제로동, 성노예제 등 모든 반인륜적행위들은 피해자들과 가해자들, 목격자들 그리고 세계의 여러 나라 연구사들과 전문가들, 법률가들에 의하여 그 가해실태와 진상이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증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강조된바와 같이 과거 일본이 감행한 모든 범죄행위들은 그 엄중성과 반인륜적성격을 놓고 볼 때 도저히 내버려 둘수 없는 문제로서 그 청산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은 물론 국제적 정의와 인류의 량심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한 력대 일본당국의 태도는 세상사람들과 국제사회계의 기대와는 너무도 상반되는것으로서 각계의 우려와 격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 등 여러 나라들이 지난 세기에 범한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유독 일본만은 이러한 국제적추이를 외면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실지로 일본당국은 과거청산은 고사하고 과거의 죄행을 어떻게 하나 력사의 흑막속에 덮어 버리고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전후 반세기가 지나고 새 세기의 두번째 해에 들어 선 오늘에도 과거를 정당화하고 공공연히 비호해 나서고 있으며 또다시 군국주의의 부활과 ≪자위대≫의 해외진출로 침략적인 과거를 재현하려 하고 있다.

일본당국을 대표하는 당신자신이 수차에 걸쳐 앞장에 서서 진행한 ≪야스구니진쟈≫에 대한 참배도 이러한 견지에서 고찰되여 아시아지역 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의 분노를 자아 내고 있다.

특히 본 토론회참가자들은 일본이 가장 큰 피해국이며 이웃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아무러한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반세기이상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대조선정책을 추구해 온데 대하여 준렬히 규탄하였다.

과거 수백만의 조선사람들에 대한 강제랍치와 무차별학살만행을 감행하고도 아무런 사죄도 없이 오히려 ≪랍치의혹≫이요, ≪대량살륙무기≫요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터무니없이 걸고 드는 일본당국의 태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토론회참가자들은 과거에 립하는 일본당국의 태도가 시대적요구와 인류의 지향에 대한 란폭한 도전으로, 피해자들과 피해국들에 대한 엄중한 모독으로 된다고 락인하면서 당신이 이에 대한 일본당국의 책임을 느끼고 응당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다음과 같은 옳은 정치적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일본정부는 침략적이고 범죄적인 자기의 과거력사를 인정한데 기초하여 책임 있는 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며 모든 피해자들과 피해국들에 공식적인 사죄와 납득할만한 보상을 하여야 할것이다.

둘째, 일본정부는 부당한 력사외곡행위와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실지 행동으로 다시는 범죄적인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 자기의 의지를 내외에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셋째, 일본정부는 과거 조선민족에게 끼친 커다란 죄행을 청산하는 문제가 조일관계해결의 중핵적인 문제라는것을 인정하고 과거청산문제에 성실하게 대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여야 할것이다.

넷째, 일본정부는 조선반도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는것이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항구적인 안전을 담보하는 유일한 타개책이라는 옳은 인식을 가지고 6.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우리들은 이상의 문제들의 시급한 해결이 일본의 도덕적, 국제적영상을 개선하고 아시아나라들과의 진정한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기 위한 중대한 일이라는것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일본의 국정을 맡고 있는 당신이 세계의 공정한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 참가자 일동
2002년 5월 4일 평양

조선중앙통신 5월 5일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북과 남, 해외단체들의 공동성명

수난 많던 민족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떳떳하게 살아가려는것은 오늘 북과 남, 해외 전체 우리 민족의 일치한 념원이고 지향이다.

전대미문의 암흑통치로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일본의 군사적강점이 끝난지도 어언 반세기이상 되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민족의 피멍든 마음은 의연 풀리지 않고 있다.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악랄한 수법과 총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조선민족특유의 슬기와 재능으로 마련된 귀중한 문화재와 수많은 자원을 마구 략탈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으며 강제적인 징병과 징용, 성노예제로 수백만의 인생을 이국의 황야에 꺼리낌없이 내던진 일제의 죄악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여기에 또 일본정부는 과거력사에 대한 철면피한 부정과 엄청난 외곡,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극심한 민족차별, 침략적이며 민족배타적인 군국주의부활과 ≪자위대≫무력의 합법적인 해외파견을 노린 법제화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존엄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가해자로서의 죄의식을 느낄줄도 피해자에 대한 초보적인 용서마저 빌줄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당연한것처럼 여기는 일본의 뻔뻔스러운 행위는 우리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 내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 민족앞에 천추만대의 큰 죄를 짓고도 이를 공공연히 부정하고 정당화하려는 일본당국의 행위를 우리 민족의 존엄에 대한 용납못할 모독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일본은 우리 민족앞에 지은 죄를 씻지 않고서는 절대로 무사치 못하리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은 어제날 일본이 제 마음대로 끌어 가고 부려 먹고 죽이고 멸시할수 있었던 그런 약소민족이 더는 아니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7천만 우리 민족은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적존엄을 건드리는데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납치 않는 자주성이 강한 민족이다.

우리들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에 참가한 북과 남, 해외의 여러 단체대표들은 일본의 과거청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일치단결하여 투쟁할 결의를 내외에 천명하면서 일본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력사적으로 우리 민족앞에 지은 엄중한 죄과에 대하여 하루빨리 성실하게 공식사죄하고 충분히 납득할수 있도록 철저히 배상하며 기만적인 ≪국민기금≫을 즉시 해체하라.

둘째, 일본정부는 과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 우리 민족에 대한 강제련행과 강제징병, 일본군성노예제 등 반인륜적인 범죄의 진상과 관련한 력사자료들을 전면 조사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시급히 취하라.

셋째, 일본정부는 침략적이고 범죄적인 과거에 대한 력사외곡책동을 묵인하고 비호조장하며 재일조선인들을 차별하는 부당한 행위를 당장 그만두며 나라의 군국화와 해외침략기도를 버리고 조선의 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라.

피해자로서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보상을 받아 내는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우리들의 신성한 권리인 동시에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더 없이 중대한 민족사적과제이다.

우리들은 앞으로 과거 일본에 의한 피해의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활동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들을 서로 나누며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이고도 완전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 낼 때까지 서로 련대단합하여 범민족적인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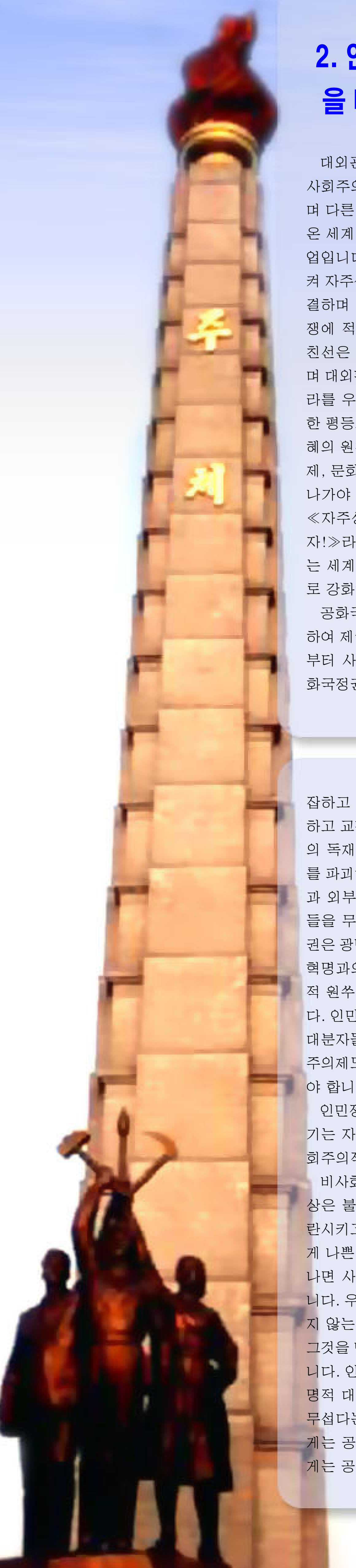
북측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아시아녀성들과 련대하는 조선녀성협회
반핵평화를 위한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
남측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해외측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워싱톤지역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2002년 5월 4일 평 양

조선중앙통신 5월 5일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3)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정권기관 일군 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81(1992)년 12월 21일



2.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2)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공화국 정권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화국 정권은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혁명적 인민들과 단결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자주, 평화, 친선은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원칙입니다. 공화국정권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관계를 맺거나 정치, 경제, 문화적 연계를 맺고 그것을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공화국 정권은 당이 제시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과 연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공화국 정권은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권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 단결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오늘 세계 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사회주의를 고수하는데서 주되는 장애로 되는 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반동세력입니다. 공화국 정권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모든 반제자주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적극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 정권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를 우리 인민의 이익과 공화국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인민정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인민적인 독재이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기초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혁명적인 독재입니다. 인민대중이 주권의 주인으로 되어 있은 사회주의정권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보위하며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줍니다. 인민정권이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할수록 당과 혁명, 인민의 요구가 원만히 실현되며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됩니다. 전체인민의 이익을 옹호보위하고 인민대중을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만드는데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본질적 특성과 우월성이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은 사회주의를 파괴하고 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책동과 요소를 짓부셔버리며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인민정권의 권력기능입니다.

인민정권이 사회를 관리하며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데서 권력기능, 독재기능을 만능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정치적 및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나라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 온갖 파괴암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정권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의 이익과 안전을 옹호보위하기 위하여서는 독재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적대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그와 결탁한 내부의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의 책동은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이 심화발전할수록 더욱 더 악랄하고 교활하여집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착취계급 잔여분자들과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광범한 군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며 반혁명과의 투쟁에 적극동원하여 그 어떤 계급적 원쑤도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독재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적대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진압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낡은 사상에 물젖어 법질서를 어기는 자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하여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비사회주의적 현상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현상은 불량행위입니다. 불량행위는 민심을 소란시키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어 군중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불량행위가 점차 자라나면 사회주의제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맹아적 단계에서 철저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불량행위를 없애기 위한 혁명적 대책을 세워 불량자들이 사회주의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에게는 공포를 주지 말아야 하지만 불량자들에게는 공포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포위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것만큼 불량행위를 없애기 위한 강한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할 수 없습니다.

인민정권은 법을 어기고 국가사회재산을 유용하거나 탐오낭비하는 현상과 상적행위를 비롯하여 돈과 물건을 가지고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도 강하게 벌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남을 속이거나 일을 하지 않고 건달을 부리며 특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없으며 또 있어서는 안됩니다. 인민정권은 온갖 부정부패현상을 극복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요구에 맞게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수준을 고르롭게 높이고 그것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력과 요소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철저한 인권옹호입니다.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입니다. 원래 인민민주주의 독재는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인민정권의 권력기능입니다. 인권의 유린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민들과 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비인간적으로 박해하며 그들의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사회주의정권이 적대분자들에게 적용하는 권력행사를 마치 인권을 유린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동입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혁명의 무기로서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더욱 강화하여 인민대중에게 더 잘 복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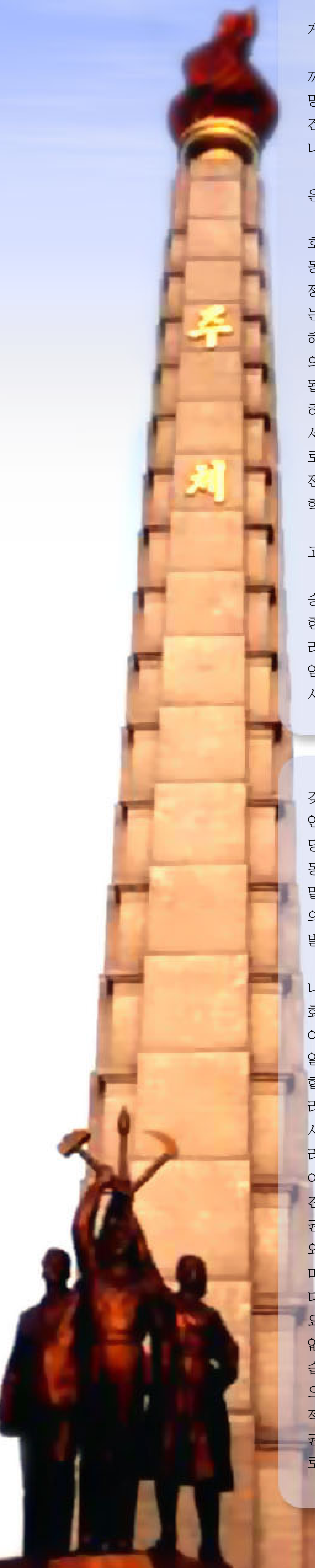
3. 인민정권 건설의 근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데 대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혁명위업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심각하고 거창한 창조과정이며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주체혁명위업은 광범한 인민대중이 적극 참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완성될 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진 인민정권에 의하여 실현됩니다.

우리 인민정권은 그 성격과 형태, 사명과 임무,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우월한 정권입니다. 우리는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의 요구에 맞

→

주체혁명위업은 광범한 인민대중이 적극 참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완성될 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진 인민정권에 의하여 실현됩니다.



게 더욱 발전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끝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정권건설에서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인민정권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

인민정권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이며 인민정권의 모든 활동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해 나가는 정권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정권은 원쑤들의 비난과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정권건설역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입니다. 우리는 정권건설에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인민정권을 변함없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전진시키고 끝까지 계승완성해 나가는 불패의 혁명정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권건설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권건설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그 계승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정권을 건설하고 관리운영하며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정권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정권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정권으로 만들고 그 혈통을 대를 이어 영원히 고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수령의 혁명정권으로 건설하고 그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여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정권 건설의 전역사적 행정에서 나서는 근본요구입니다. 혁명정권을 건설하여 나가는 역사적 행정에 혁명의 대는 끊임없이 바뀌어지고 혁명임무도 달라지지만 수령의 혁명정권으로서의 인민정권의 혁명적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민정권이 수령의 혁명정권으로서의 자기대를 이어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곧 인민대중을 위한 정권으로서의 혁명적 성격이 변질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력사적 교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혁명의 원쑤들과 배신자들은 혁명정권을 파괴하고 뒤집어엎기 위하여 정권건설에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거세하고 헐뜯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정권 건설에서 언제나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인민정권의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수령이 이룩한 혁명정권건설의 전통을 고수하고 대를 이어 순결하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다른 모든 혁명위업과 마찬가지로 정권건설위업도 일정한 합법칙적 로정에 따라 발전되며 그 과정에 정권건설의 사상, 이론, 방법이 창시되고 업적이 이룩됩니다. 정권의 혁명전통은 정권을 세우고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더없이 귀중한 재보로, 초석으로 됩니다. 혁명정권은 혁명전통에 의거하여 자기의 명맥을 이어나갑니다. 만일 정권의 혁명전통에 이색적인 것이 끼어들거나 정권의 혁명전통이 말살되면 정권은 밑뿌리가 병들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인민정권의 혁명전통을 흐리게 하거나 말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권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하여 인민정권이 수령의 정권으로서의 자기의 대를 변함없이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권건설에서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는 당의 령도를 통하여 실현됩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할 사명을 지니고 투쟁하는 혁명의 전위대, 향도자이며 인민정권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입니다. 당의 령도 밑에서만 인민정권은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고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는 인민정권의 존재자체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의 령도는 인민정권의 생명선입니다. 현실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하면 인민들이 정권을 잃게되며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도, 행복한 생활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권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온갖 경향과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인민정권안에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높여 정권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당의 령도밑에 풀어나감으로써 인민정권을 영원히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정치적 무기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주체적 입장에서 공고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주체적입장에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인민정권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요구입니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일정한 사회적 집단을 단위로 하여 살며 발전합니다. 사람들의 생활속에 제일 깊이 뿌리내리고 그들을 가장 공고한 운명공동체로 결합시키는 사회적 집단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정권건설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하는 것은 응당합니다.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하면 정권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자기 인민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으며 나중에는 정권건설위업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정권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자기 인민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으며 나중에는 정권건설위업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정권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자면 반드시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정권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정권건설위업을 철저히 주체적 입장에서 우리 식대로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시대와 혁명이 발전하는데 따라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민정권은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되어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간고하지만 쟁취한 정권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정권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사업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정권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이 자주적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되어 나갈 때에는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인민의 버림을 받는 정권은 무너지지만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정권은 강해집니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건설하자면 인민정권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그것을 구체화한 자기의 시책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이 시책에 의하여 정권건설과 활동의 기본방향과 내용, 방법이 규정됩니다. 정권을 어떻게 건설하고 관리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인민정권이 자기의 시책을 어떻게 세우고 집행하는가 하는데 귀착됩니다. 인민정권이 시책을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게 세운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자기의 조직적 의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의사를 자기의 의사로 전환시킨다고 하여 정권건설과 활동이 곧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실질적으로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건설하고 관리운영하자면 인민정권이 자기의 시책을 인민대중자신의 것으로 전환시키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하여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민정권이 자기의 시책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집행정형을 감독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기구적으로, 법률제도적으로 고착시켜 실제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민정권이 자기의 시책을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세우고 집행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언제나 인민대중의 참다운 복무자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건설하자면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건설해 나가는 사업은 사회주의제도의 강화발전에 의하여 담보되고 심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인민정권을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과 혼연일체를 이룬 참다운 혁명정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 계속)

1. 이 광 (2)

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이광이, 너무 그러지 마오. 은혜는 반드시 고맙다는 인사가 뒤따르는 법이오. 내 어머니의 몫까지 합쳐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광이 우리에게 그처럼 진정이 넘치는 후원을 해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소.≫

≪나도 그러리라고 짐작했소. 그런데 성주, 나의 그 선행은 우연이 아니오. 계기가 있단 말이오.≫

≪무슨 계기?≫

≪어느 날 성주 어머니는 나에게 성주 아버지와 혼사를 이루던 이야기를 옛말처럼 해주시지 않겠소. 어머니의 말씀이 그 혼사가 이만저만 힘들게 성사되지 않았다는 거요.≫

≪그 혼담은 나도 알고 있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어머니는 우리 삼 형제를 앉혀놓고 그 고사를 이야기해주셨소. 그건 참말로 눈물겨운 혼담이었소.≫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합할 때에 생긴 혼담이니 그것은 아마도 ≪한일합병≫ 전야에 있은 고사일 것이다.

어머니의 집이 있던 칠골과 아버지의 집이 있던 남리는 나지막한 야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7리쯤 떨어져 있었다. 남리에서 평향성 안으로 가자면 반드시 칠골을 지나야 했다. 칠골 사람들도 남포 방면으로 나갈 때는 남리 부근을 지나다녔다. 친교가 깊고 내왕이 잦다나니 두 동네 사람들은 서로 사돈을 잘 맺었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남리에서 사윗감을 물색하였는데 그 첫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 총각이 다름아닌 우리 아버지였다. 두 집 사이에 매파가 왔다갔다하게 되자 외할아버지는 남리의 아버지네 집에 먼저 와보았다. 그러나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칠골로 돌아갔다. 사위감은 마음에 들었으나 살림살이가 지나치게 궁색하였기 때문이였다. 그처럼 가난한 집에 딸을 보내면 고생만 하게 될 것이라는 위구와 불안이 외할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외할아버지는 그 후에도 다섯 번이나 우리 아버지네 집에 와보았다. 가난이 원쑤라고 아버지네 집에서는 사돈될

리광

사람이 여섯 번씩이나 다녀가는데도 점심 한 끼 변변히 대접하지 못하였다. 외할아버지는 여섯 번째 만에야 칠골 외할머니와 의논하고 약혼에 동의한다는 편지를 남리에 보냈다.

≪나는 그 혼담을 들은 다음부터 성주네 가계를 더 잘 알게 되었소. 내가 참게사건까지 알고 있다면 성주는 깜짝 놀라겠지?≫

이광이 참게사건이라는 말을 꺼내는 바람에 나는 정말로 깜짝 놀랐다. 그 사건은 우리 가문에서도 어머니나 보현 할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어른들과 나만 알고 있는 가정 고사였다.

≪아니, 이광이 어떻게 되어 그 일까지 다 알게 되었소?≫

≪내가 성주네 집안 사람들과 어느 정도로 친숙해졌는지 짐작이 가겠지?≫

이광은 내가 놀라는 것을 보고 약간 우쭐하는 체 하였다.

내가 참게잡이를 시작한 것은 만경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예닐곱 살 때였다. 우리 할아버지는 집안살림에 보탬을 주느라고 참게잡이를 많이 하였다. 대동강의 지류인 순화강에는 참게가 많았다. 할아버지는 참게잡이를 하러 갈 때마다 어째서인지 나를 꼭꼭 데리고 다녔다. 어려서부터 생계를 이어가는 요령을 터득하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부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참게였지만 절구어 먹으면 그것도 별식이었다.

참게잡이는 좀 싱겁다고 할 정도로 공정이 아주 단순하고 단조로운 것이 특징이였다.

푹 삶은 수수이삭을 강물에 넣으면 날알냄새에 참게들이 새까맣게 모여들었다. 우리는 하루에 수십 수백마리씩의 참게를 잡아내곤 하였는데 그것을 구럭에 넣어들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즐거움이란 실로 한량없는 것이었다. 우리 집의 식생활에서 참게는 큰 보탬이 되었다. 할머니는 집에 손님이 올 적마다 단지속에서 절군 참게를 꺼내어 권하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도 저런 참게를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하였다. 나에게 있어서 칠골외가는 끝없이 사랑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신비의 세계였다. 나는 칠골집 외양간에서 풍기는 구수한 소여물 냄새를 좋아하였고 뜨락의 대추나무가지에서 귀따갑게 재잘거리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언제나 즐겼다. 여름날 밤 모기 쑥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멍석 위에서 듣는 옛말에도 그지없는 애착을 느꼈다. 나의 이모는 내가 외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칠골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늘 훈계하시곤 하였다. 아마 나를 낳을 때 어머니가 친정집에 얼마동안 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의 출생지를 늘 남리라고 하였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을 때 며칠동안 친정에 가 있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출생지가 칠골로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여자가 설사 객지에서 몸을 풀어도 아이의 아버지가 사는 집이 있는 곳을 출생지로 정하는 것이 조상전래의 법도라는 것이였다.

어쨌든 나는 외가를 친가에 못지 않게 몹시 사랑하였는데 이 감정이 참게잡이를 하는 순간에도 무시로 발동되었다. 나는 칠골에서 창덕학교를 다닐 때에도 일요일이면 만경대에 가서 할아버지와 함께 참게잡이를 하였다. 어느 날 나는 그 참게의 절반을 수풀속에 감추고 할아버지에게 구럭을 내드렸다. 할아버지는 ≪오늘은 소득이 신통치 않구나.≫하면서 마리 수가 적은 데 대해 아쉬워하였다. 나는 그 말을 못 들은 체 하였다.

사실 제대로 일을 처리하려면 내가 할아버지에게 외갓집에 갖다주려고 절반 몫을 남겨놓았다고 진상대로 말했어야 했다. 그런데 실토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기뻐하시겠는지 언짢아하시겠는지 가늠이 가지 않아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집까지 구럭을 들어다드린 다음 다시 순화강가에 나가 수풀속에 숨겨놓았던 참게를 구럭에 담아 들고 칠골로 냅다 뛰었다. 외가사람들은 성주 덕에 오늘은 게추렴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뻐하였다. 나는 그 참게는 보현할아버지가 잡은 것이니 인사를 하려면 만경대 할아버지에게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만경대에 왔다가 보현할아버지에게 참게자랑을 하였다. 사돈덕으로 참게를 먹었는데 별맛이더라고 하면서 그 전말을 다 이야기하였다.

보현할아버지는 앉은자리에서 뜻하지 않는 인사를 받고 어리둥절해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흐뭇해하였다. 며칠 후 나는 할아버지한테서 속궁냥이 깊다고 칭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이광이 알고 있다는 참게사건이었다. 가난만이 빚어낼 수 있는 일화이고 인정세태극이었다.

그런데 이광은 인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이 일화를 소화한 것 같았다.

≪나는 혼담 이야기와 참게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성주네 일가를 동정하기 시작했소.≫

이광의 말이었다.

나는 그 설명속에 담겨져 있는 이광의 사려깊은 마음씨에 완전히 감복되었다.

≪이광이, 향장을 하는 재미가 어떻소?≫

이것은 내가 중부 만주지방에 있을 때부터 알고 싶었던 문제였다. 그 당시 동만에 파견되었던 공작원들이 간도지방에서 보내온 통보자료에 바로 내가 가장 관심하고 있던 사업대상 중의 한 대상인 이광이 왕청에서 향장으로 일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었던 것이다.

이 광은 나의 물음에 미소부터 지어보였다.

≪고달프긴 하지만 소득이 괜찮소. 지난해 가을에 우리 동무들이 하마탕에서 보위단에 붙잡힌 일도 있는데 그때도 내가 보증을 서서 그 사람들을 구출했댔소. 향장의 간판이 은을 낸 셈이지.≫

그는 농담으로 만일 허락만 한다면 자기는 종신 향장을 할 의향도 있노라고 하였다. 내가 고향자랑을 자꾸하자 이광은 이런 농까지 하였다.

≪만경대가 그런 절경이라면 나도 독립된 다음 가족을 데리고 성주를 따라가겠소.≫

≪종성은 어떻하구? 고향이 종성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을 붙이면 아무데나 고향이지 뭐 태어난 고장만 고향이겠소? 어쨌든 내가 가면 소학 훈장자리나 하나 잡아주구려. 성주는 교장을 하고 나는 그 밑에서 교사로 일해야지.≫

→

리광의 가족사진
(뒤줄 오른쪽이 리광)

≪이걸 어쩐다. 난 소학훈장이라면 질색인데…≫

≪그런 말 마오. 저기 안도인가 고유수인가 하는데서 교단에 선 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소. 아버님도 다년간 교편을 잡던 분이시였다는데.≫

우리의 우정은 별동대를 조직하던 나날들에 더 두터워졌다. 이광이 나를 만나려고 소사하로 찾아온 것은 그가 우리의 권고대로 왕청에서 별동대를 조직한 직후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청년들에 대한 구국군의 적대적 행동으로 하여 왕청동무들은 그 당시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준비에서 커다란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이광은 별동대를 조직한 다음에도 그 활동방향을 결정짓지 못해 안타까와하였다. 나는 그때 그에게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들과 방도에 대한 나의 견해를 말해주고 그와 함께 별동대의 활동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의논하였다.

이광은 나의 건의를 허심하게 받아들였다.

좁쌀에 수수쌀을 섞은 밥과 된장국, 마른 산나물채가 고장이였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때 이광을 극진하게 환대해주었다. 이광도 우리 어머니를 몹시 따르고 존경하였다. 어머니의 육친적 사랑은 이광을 감동시켰고 이광의 청춘다운 열정과 순박한 품성은 어머니를 만족시켰다.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한 것은 이광이 흥륭촌에 와 있을 때였다. 병상에서 일어나 철주와 함께 유격대오를 찾아온 어머니는 이광이 메고 있던 총을 만져보면서 이런 총을 가져야 진짜 싸움을 할 수 있다. 독립군처럼 닭다리 같은 총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일본놈의 군대를 쳐부수겠나, 너희들이 군대를 만들고 총 멘 것을 보니 평생을 두고 쌓인 한이 다 풀린다. 너희 어머니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어머니들은 자식이 머저리 구실을 하거나 몹쓸 짓을 하면 가슴이 아파울지만 나라를 위해 총을 메고 싸움에 나선 아들들을 보면 장해서 눈물을 짓는다고 하였다. 이광은 왕청에 돌아가서 구국군과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우리가 안도에서 우 사령과의 합작을 성공에로 이끈 것은 반일부대공작의 좋은 경험으로 되었다. 시초의 반일부대공작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많은 구국군 부대들이 우리와의 반제공동전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섰다. 구국군 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하는데서 주패장은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다. 그런데 좌경이 이 통일전선을 방해하였다. 그들에 제창한 ≪상층타도, 하층쟁취≫의 모험주의적 구호는 반일부대 상층의 강한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고 적지않은 구국군 지휘관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자들을 경계하거나 탄압학살하는 길에 들어서게 하였다. 이런 때에 이광이 반일부대 공작에 뛰어든 것은 어느모로 보나 환영할 만한 일이였다.

이광은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위하여 거주지도 북하마탕으로부터 태평구로 옮겼다. 그때 나는 태평구에 있는 그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다. 300호 가량의 농호를 가진 태평촌은 지리적으로는 소왕청, 요영구, 노흑산을 연결하는 삼각지점의 중심에 놓여있는 마을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소만국경이 있었다. 이 동네에서 나자구까지는 20-30리 가량 되었다. 구국군의 중요 집결지들이 다 태평구 가까이에 있었다. 이광이 지휘한 별동대의 주둔지는 나자구 시내에서 5리 가량 떨어진 잔창거우였다. 이광의 집은 태평구 본부락 강기슭의 오르막 경사지에 외따로 떨어져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그 집 옆에 있던 용드레우물이다. 그래서 이광이네 집을 용드레집이라고 불렀다. 내가 이 우물에서 물을 여러 번 마셨다.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땀을 철철 흘리며 집앞에 나타나면 이광이 용드레우물에서 찬물을 한두레박 떠가지고 와 나에게 권하곤 했는데 그 물이 별맛이였다. 나는 나자구에 갈 때마다 태평구에 들려 이광의 부모들에게 꼭꼭 문안인사를 드리곤 하였다. 우리가 주보중, 진한장, 호진민, 왕윤성 등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구국군과의 통일전선문제를 토의한 마지막 반일병사위원회도 이광의 집에서 하였다. 이광은 소왕청방어전투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대소 전투들에서 지휘관으로서의 높은 수완과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가 발휘한 실천적 모범은 구국군병사들을 감화시켰으며 군사정치일군으로서의 그의 명성은 동만의 광범한 민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별동대를 반만항일의 진정한 무장력으로 신임하게 된 오의성은 이광을 구국군전방사령부 보위대대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경위대원들까지 붙여주었다. 그 후 이광은 구국군과의 연합항일을 위하여 동산호와 연계를 가졌다. 반일을 한다고 무장을 들기는 하였으나 동산호는 이미 토비로 전락된 자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적잖은 사람들은 토비와 마적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 만주지방에는 예로부터 마적이 많았다. 청나라 말기에 관내로부터 많은 한족들이 산해관을 넘어 만주지방으로 흘러들어올 때 이 이주민들의 침습으로부터 농토를 지키고 조상전래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고장 사람들은 자위적인 무장대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일본사람들이 마적이라고 명명한 만주에서의 의적의 시작이였다.

마적단은 ≪산적≫이나 ≪유적≫과 같은 잡스러운 도적떼와는 달리 자기식의 법도를 갖춘 의적으로 행세하였으며 남의 재물에 대한 강도, 강탈행위를 추구하지 않았다. 마적사회는 중앙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 권력에 대하여 저항적이였다. 마적생활은 무장을 떼어놓고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무장을 휴대하고 살아왔다. 그런 생활은 사람들속에서 일종의 부러움과 동경심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여표남비≫라는 말이 만주지방에서 공연히 유행되었겠는가. ≪여표남비≫란 여자는 창녀가 되고 남자는 비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마적사회의 엄격한 법도가 물론 어느 때나 다 존중시된 것은 아니였다. 적잖은 마적부대는 생존과정에 부패타락하여 토비로도 되었다. 어느 것이 의적이고 어느 것이 토비인지 정체를 똑똑히 판단할 수 없는 성격이 모호한 마적단들도 있었다. 적잖은 비적들은 의적으로 행세하였다.

의적의 탈을 쓴 비적떼들이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과 군벌들에게 정치적으로 매수이용되어 무지막지한 살육을 감행할 때 그 피해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였다. 반일부대공작 과정에서 발로된 좌경분자들의 ≪상층타도≫전략으로 하여 많은 구국군 지휘관들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원한과 반감에 사무쳐 있을 때 그것을 재빨리 포착하고 반일역량의 내분에 이용한 것은 일제의 모략가들이였다. ≪이이제이≫나 ≪이비정비≫는 모략의 능수이고 이간의 명수인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남의 손을 빌어 반일역량들끼리 서로 싸우고 물어뜯어 지리멸렬케 하는 악명높은 수법이였다.

일제는 동산호가 이광 별동대를 전원 참살할 때에도 이 수법을 적용하였다. 그 첫 작업으로 이광에 대한 귀순공작에 달라붙었다. 이광을 잡으면 많은 상금을 주며 이광 자신이 귀순하면 높은 벼슬을 준다는 오만무례한 통첩장이 사방에 나붙었다. 오의성의 부대를 와해시키자면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막아야 하는데 그 영향을 주입하는 장본인이 이광이라고 그들은 단정하였다. 이광의 별동대는 구국군의 심장부에 깊숙이 들어박힌 통일전선의 돌격대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만하면 일본 정탐기관들이 그의 금새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토비의 전형인 동산호는 정치적으로 암둔한데다가 포악하고 변덕스러운 자여서 일본의 모략가들에게 쉽게 매수당하였다. 이광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던 그는 일제가 자준 각본대로 노흑산에서 연합작접 문제와 관련한 담판을 하자고 미끼를 던졌다. 실책은 이광이 이 미끼를 덥석 받아문 것이였다. 그는 동산호가 일제의 개로 전락된 사실을 모르고 구국군 전방사령부 비서장 왕성복을 비롯한 10여명의 별동대원들과 함께 노흑산으로 떠났다.

당조직에서는 동산호와 같은 무지막지한 토비대장과 접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 심사숙고하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광은 반제공동전선노선을 관철하지 못하면 혁명을 더 전진시키지 못하는데 신변이 위태롭다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하겠다고 하면서 끝끝내 초지를 굽히지 않았다.

동산호는 연회까지 차려 이광 일행을 대접하고는 그들을 모조리 학살하였다. 살아서 돌아온 것은 단 한 사람뿐이였다. 토비들은 이광이네 일행이 다 죽은 줄로 알고 학살현장에 그 사람을 그냥 내버리고 달아났는데 우리가 가서 구원해주었다. 그런데 그도 훗날 나자구와 노흑산 사이의 수림지대에서 전사하였다.

이광은 당년 29살의 청춘으로 불귀의 객이 되었다. 그의 잘못은 경각성이 없은 것이였다. 동산호와 통일전선을 하려면 사상적으로 그들을 개조시켜야겠는데 그는 그저 인간적으로 친교를 맺는 방법으로 통일전선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노흑산 부근의 산막에서 붙잡혀 학살당하였다.

나는 이광의 죽음앞에서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나의 감정을 지배한 것은 부대를 데리고 가서 동산호 일단을 당장 요정내고 싶은 복수심뿐이였다. 반일부대들과의 공동전선을 이룩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앞에 부과된 시대적 의무이고 과제이며 총전략이라는 이성의 목소리만 아니였더라면 나는 그런 감정의 분출을 자제하지 못하고 유혈적인 복수전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온 동만이 동산호의 천인공노할 죄행을 절규하며 피는 피로써 갚자고 부르짖었다. 좌경망동분자들은 군대가 출동하여 이광을 참살할 계급적 원수들에게 쓴맛을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다. 유격대가 동산호를 치지 않는 것은 우경이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반제공동전선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위업은 이광의 희생으로 하여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았다. 우리는 1000명의 적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동지를 잃었다. 적들은 내 곁에서 조선혁명을 떠메고 나갈 또 하나의 동량지재를 앗아간 것이였다.

(내일 계속)

일화

나는 근로하는 인민의 심부름꾼이다.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위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

어느해 여름 **김일성**주석님을 따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창광산에 오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청사 지붕위에 창공높이 펄럭이는 조선노동당의 당기를 바라보시며 감개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붉은 기폭에는 인민대중, 다시 말하여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의 모습이 새겨져있습니다. 인민대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인민대중을 열렬히 숭배합니다. - 나는 근로하는 인민의 심부름꾼이다.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위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 - 이것이 수령님의 좌우명이자 나의 좌우명입니다.≫

참으로 숭고한 뜻이 어린 말씀이였습니다. 저녁노을빛은 당기를 더욱 붉게 물들이는 듯싶었습니다.

이윽하여 당기에서 눈길을 떼신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심부름꾼 구실을 잘하지 못하면 **김정일**이가 아닙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신 후 창광산을 내리셨습니다.

장군님의 좌우명에는 한평생을 나라와 혁명의 주인인 민중의 충복이 되어 민중의 염원인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려는 그분의 숭고한 민중애와 인생관이 집약되어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런 고결한 좌우명에 따라 언제나 철두철미 민중은 하늘이고 스승이며 자신은 민중의 아들이고 심부름꾼이라는 자세와 입장에 서계시며 모든 노선과 정책을 민중의 요구와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세우고 집행하시며 모든 사색과 활동을 민중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데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일관시키고 계십니다.

1978년 6월 어느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함흥시의 유측에 있는 어느 한 지구의 주민들이 물맛이 좋은 중심지구의 수도물을 부러워한다는 것을 아시게 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곧 해당 부문 일꾼들을 부르셔 함흥시의 상수도망배치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서 왜 그 지구 주민들에게 함흥시 중심지구와 같은 물을 끌어다 주지 않는가고 물으셨습니다.

한동안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던 일꾼들은 그 지구의 수도물이 수질상 그리 나쁘지 않은데다가 거기까지 수도물을 끌어가자면 방대한 자금을 들여 복잡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자금이 든다고 해도 인민들의 소원을 안 이상 그저 스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공사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 건설대상들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보장하자고만 해도 긴장한 때에 많은 자재와 자금을 들여 당장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것도 아닌 상수도공사가 시작되게 되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중첩되는 정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사정형을 자주 알아보시면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풀어주군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밀고나가던 함흥시의 일꾼들은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도에서 자체로 생산하지 못하는 일부 설비들과 자재들이 제기되는 바람에 공사를 기본적으로 다해놓고도 주민들에게 새 수원지의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신 장군님께서는 전화로 정무원의 한 책임일꾼을 찾으셔 함흥시 상수도공사에서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설비들이 있는가를 알아보셨습니다.

책임일꾼은 그런 설비들이 있기는 한데 이미 중요한 건설대상들에 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 생산에 물려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건설도 인민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건설에 지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함흥시 상수도공사에 필요한 설비를 먼저 돌려줍시다.≫

함흥시 어느 한 지구의 상수도공사는 이처럼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민중애에 의해 시작되고 그분의 끊임없는 배려와 보살피심 속에 훌륭히 완공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70돌인 1982년 4월 15일에 그곳 지구의 집집마다에는 새 수원지의 물이 일시에 흘러들게 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는 새 수도물맛이 어떤가, 주민들이 좋아하는가 알아보시고는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었으니 자신께서도 한가지 시름을 덜었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민중에 대한 헌신적 복무는 민중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발현입니다.

≪나는 근로하는 인민의 심부름꾼이다.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위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좌우명을 지니시고 민중의 심부름꾼구실을 잘하지 못하면 **김정일**이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민중의 요구와 이익, 행복을 위해 헌신복무하시는 **김정일**장군님은 진정 이신위민의 화신이시며 민중의 위대한 영도자이십니다.

송시

또다시 노래하노라 우리의 붉은기 (5)

아, 백두에서 추켜 든 붉은기를
먼먼 세기의 하늘가에도 휘날리기 위하여
우리는 더 높이 붉은기를 들었다
그것만이 시련을 이겨 낼수 있기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마다 붉은기를 더 높이 들었다

더 높이 휘날리라
더 세차게 나붓기라, 우리의 붉은기여
준마 타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진격의 시대에 휘날려 휘날려
우리가 살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 갈 조국땅우에
붉은기강성대국을 일떠세우리

자주로 존엄 높고
단결로 승리하며
애국애족으로 부흥하는
삼천리강토를 바라보며
붉은기아래서 내 웨치나니

22세기, 23세기…
백년, 천년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우리의 후손들이여
강산은 변하고
지구가 변한다 해도
우리 수령님의 품에서 태여나고
우리 장군님께서 휘날려 가시는
이 붉은기만은 절대로 놓지 마시라

붉은기를 놓으면 노예가 되고
붉은기를 들면 주인이 되는
이 력사의 진리를
민족의 유산으로
천대만대 후대들에게 넘겨 주리라

하늘엔 만물에 빛과 열을 주는
태양이 있어야 하고
땅우엔 인류에게 사상과 리념을 주는
붉은기가 있어야 함을
세월이 갈수록
내 더더욱 가슴깊이 깨닫나니

김정일동지-그이는
20세기처럼
새 세기에도 붉은기를 높이 휘날려가시는
단 한분 붉은기사령관
붉은기수령

내 경건히 그이를 다시 우러르니
아, 2월의 이 아침도
세기의 폭풍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위대한 **김정일**장군
한손을 높이 들어
인민들에게 뜨거운 축복을 보내신다

- 붉은기여, 앞으로
사회주의붉은기대행진에 영광이 있으라!-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

노동신문 - 주체91, 1월 10일

백두산은 우리 인민이 세기를 이어 꿋꿋이 계승해 나가는 위대한 혁명전통이 창조된 혁명의 성산이다. 시련이 겹쌓일수록 백두산을 생각하고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만난을 뚫고 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질이다.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우람찬 발걸음소리가 천지를 진감하는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백두령장의 담대한 공격정신을 더욱 심장깊이 새기고 힘차게 싸워 나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열백번 바뀌여도 변할수도 바뀔수도 없는것이 백두의 혈통이며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다. 우리는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하더라도 그 길로만 나가야 하며 그 길에서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 놓여 있지만 우리의 심장은 필승의 신념에 넘쳐 있다.

우리에게는 준엄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게 하는 원동력, 위대한 백두령장의 담대한 공격정신이 있다.

백두의 대담한 공격정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꿋꿋이 이어 나가시는 혁명정신이다. 백두의 공격정신은 천만대적과도 단호히 맞서 굴함없이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과감히 맞받아 뚫고 혁명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가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이 완강한 공격정신이 있었기에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될수 있었으며 전후 재더미우에서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를수 있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백두의 공격정신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꿋꿋이 계승발전되고 있다.

일찌기 항일의 전구에서 백절불굴의 투지와 무비의 담력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가렬한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의 작전대결에서 맞받아 나가는 의지와 전술을 터득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수십성상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우리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20세기 마지막년대의 준엄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천하를 뒤흔드는 담대한 배짱과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높이 울리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백두의 공격정신은 강성대국건설의 총 진군길에 오른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이 누구나 다 지녀야 할 선군시대의 위력한 혁명정신이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백두의 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지에 따라 설계되고 장군님식으로, 장군님의 본때와 기질로 건설되는 **김정일**강성대국이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이 백두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담대한 공격정신으로 숨 쉬고 투쟁해 나가는 여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총 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뜻 깊은 올해를 **김일성**민족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해로 되게 하는 길이 있다.

오늘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투쟁해 나가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격파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수호해 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강의한 혁명정신에 의하여 고수된다.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제국주의자들을 제압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사생결단의 위업이다. 지금 적들은 우리를 붕괴시켜 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적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는 길은 하루빨리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데 있다. 국력이자 자주권이며 존엄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우리의 필승의 보검은 위대한 장군님의 담대한 공격정신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힘에는 힘으로 대답하며 불은 불로 다스려야 한다는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드팀 없는 의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담대한 공격정신이 있었기에 최근년간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무적의 군력이 다져질수 있었으며 선군을 담보하는 강력한 국가경제력이 마련될수 있었다. 실천적투쟁경험은 위대한 장군님의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싸워 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조국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할수 있으며 강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누리에 떨쳐 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투쟁해 나가는것은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개화기를 열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지난해는 21세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 장엄한 진격의 해였다. 전반적경제분야에서 생산이 장성하고 도처에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생산기지들이 일떠섰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전면적인 공세에로 나아갈수 있는 공격진지를 확고히 차지한것은 지난해에 이룩된 고귀한 성과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디였으나 우리앞에는 더욱 무거운 과제들이 나서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에 전면적개화기를 마련하고 그 기세로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이다.

우리의 목표는 변화된 환경과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여러 해째 난관을 겪은 우리 경제를 단순히 되살리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란듯이 강성대국을 세워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 주시고 세워 주신 **김일성**조선을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세계제일의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거창한 위업이다. 위대한 목표는 완강한 공격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요구한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땅우에 하루빨리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무한대한 열정과 투지로 우리 혁명을 이끌고 계신다. **김정일**동지의 완강한 공격정신에 의하여 가까운 앞날에 전면적개화기를 열어 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들이 갖추어 지고 행복의 미래가 가꾸어 지고 있다. 희세의 정력가, 완강한 공격정신의 체현자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의 전도는 끝 없이 양양하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백두의 공격정신이야말로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는 무적의 힘이며 우리 조국이 강성대국에로 나래치게 하는 비약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담대한 공격정신으로 올해의 총 진군을 더욱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누구나 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필승의 신념과 배짱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총 돌격전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 누가 최후의 승리자로 되는가 보자, 이것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계시는 드팀 없는 립장이다. 이런 필승의 신념에 바탕을 둔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맞받아 나가는 기질이며 백두의 공격정신이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필승의 신념을 가슴깊이 새기고 올해의 진군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적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적들과 결판을 내야 한다는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 총 공격전을 벌려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은 본질에 있어서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다.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투철한 신념이야말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심장속에 맥박쳐야 할 **김일성**민족의 넋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위력을 깊이 체득하며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져야 한다.

눈은 현실을 보지만 신념은 미래를 본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락관을 지니고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며 혁명적랑만에 넘쳐 올해의 총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따라 배워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과감히 맞받아 뚫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가장 지혜롭고 힘 있는 인민이며 이 세상에 조선사람이 못해 낼 일이란 없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완강한 공격정신에 일관되여 있는 확고한 신조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의 총 진군에서 조선사람의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는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시기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조선사람의 슬기와 힘을 과시한 라남의 숨결, 라남의 정신이 세차게 맥박쳐야 한다. 무슨 일을 하나 해도 목표를 높이 세우고 통이 크게 작전하며 대담한 공격전을 벌려 끝장을 보아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항일유격대식 일행천리기상으로 모든 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일행천리전술은 항일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유격전법이며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혁명령도방식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행천리기상으로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대담한 목표를 제시하시였으며 나라의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가고 계신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철주야로 분투하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풍모를 적극 따라 배워 더 높이, 더 빨리 총 진군의 발걸음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천리마를 탄 기세로 열걸음, 백걸음을 내달리던 1950년대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나가야 한다. 공장을 하나 세워도 최신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인 공장을 세우고 토지정리를 하고 물길공사를 하여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불이 번쩍 나게 해제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의 목표를 점령해도 최첨단수준으로 도약하여야 한다.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올해의 총 진군에서 앞장에 서야 할 기수들은 일군들이다.

일군들은 선군시대의 지휘관답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담대한 공격정신을 지니고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제껴야 한다. 지금은 열성 하나만 가지고 일할 때가 아니다. 일군들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공격전의 기수가 되자면 실력이 있고 타산이 밝아야 하며 손탁이 세야 산다.

당조직들은 온 나라에 백두령장의 담대한 공격정신이 꽉 차넘치게 하기 위한 일대 정치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력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깊이 새겨 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그들이 미래를 락관하며 일대 공격전을 벌려 나가도록 적극 떠밀어 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시련과 난관이 가로 놓여 있지만 백두산장군의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투쟁해 나가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담대한 공격정신으로 올해전투를 힘 있게 벌려 나감으로써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우에 하루빨리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자.

(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11회
학사 김창호선생 - 주체91, 5월 7일

크나큰 담력과 강의한 의지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려서부터 크나큰 담력과 강의한 의지를 천품으로 지니고 계셨다는 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의 전쟁사에는 전쟁을 승리에로 이끈 것으로 해서 명장으로 불리운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군사적 지략이나 전법이 뛰어난 명장도 있고 영웅적인 기질이나 용맹을 지닌 명장도 있었으며 또 담력이 큰 명장도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명장은 지인용을 겸비해야 한다고 해왔는데 이런 징표를 놓고 볼 때 그들 모두는 명장으로써 한 두가지 징표만을 겸비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인용을 겸비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또 그것을 모두 겸비한 명장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류는 탁월한 군사적 지략과 전법, 무비의 담력과 숭고한 인덕을 모두 겸비한 명장, 다시 말해서 지인용을 모두 겸비한 걸출한 명장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은 군사적 지략에서나 담력, 인덕에 있어서 역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명장 중의 명장이십니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희세의 명장으로써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장군다운 풍모에 매혹된 이전 소련 국방상이였던 소련원수 야조프는 ≪**김정일**최고사령관과 필승강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시대의 명장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이익을 지키고 전쟁을 방지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를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이시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의 이 말은 현실의 명장으로서의 우리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입니다.

판문점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지략과 전법에 능하고 담력이 큰 명장을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김정일장군은 지략과 군사전법이 뛰어날 뿐 아니라 무비의 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은 지략과 군사전법이 뛰어날 뿐 아니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백두산형의 장군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크나큰 담력과 강의한 의지를 천품으로 지니고 계시였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크나큰 담력과 강의한 의지는 그분의 어린시절에 어떻게 발현되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그 어떤 두려움도 모르는 강인한 의지를 지니신 데서 발현되었습니다.

한두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해의 가을 어느날이였습니다. 그 날 군사훈련에 참가하셨다가 돌아오신 김정숙동지께서 어리신 아드님을 부르셨습니다. 어리신 그이께서는 어머님을 보자 반기며 일어나 걸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할 때라 그만 넘어지셨습니다. 곁에 있던 항일의 여투사들이 그이를 일으켜 세워주려 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어머님께서는 그냥 놔두라고 하시면 다시금 어리신 그이를 부르시며 어서오라고 두손을 펴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다시 일어나 몇 발자국을 걸으셨으나 또다시 넘어지셨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숙 어머님께서는 어리신 그이를 일으켜 세우주시지 않으시고 일어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투사들은 어리신 그이께서 주저 앉으셔서 금방이라도 우실 것만 같아 가슴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또다시 일어나셔서 어머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무비의 담력과 강력한 의지의 소유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로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심으로해서 부닥치는 모든 난관을 극복했고 오늘은 강성대국 건설에로 신심 드높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실례입니다. 광복직후 어느날이였습니다. 어리신 그이께서 어머님과 함께 경마구경을 하신적이 있으셨습니다. 경마장에서 돌아오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도 한 번 말을 타보고 싶으셨습니다. 그이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리신 그이를 백마 위에 올려 앉히시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원둘레를 한 바퀴 도시고 말고삐를 어리신 아드님께 넘겨주시였습니다. 그러자 말은 투래질을 하면서 뒤발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눈 한번 깜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고삐를 바짝 틀어쥐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경애하는 그이의 증조할머님께서 날치는 말위에 어린아이를 태워놓고 무슨 일을 치루자고 그러느냐고 나무람을 하셨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할머님께 걱정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리신 그이께서는 허리를 쭈욱 펴고 무섭지 않다고 하시며 기마수들처럼 고삐를 틀어쥐고 말을 몰고 달리셨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어리신 그때부터 그 어떤 두려움을 모르시는 강의한 의지를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크나큰 담력과 강의한 의지는 유년기의 나이로써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담력을 지니신데서 표현되었습니다. 그 몇가지 실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체37(1948)년 가을 어느 날 그이께서 유치원에 다니실 때 일입니다. 그날 그이께서는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집짓기 놀이를 하고 계시었습니다. 다른 어린이들은 집짓기 놀이감을 가지고 아담한 기와집이나 기껏해서 2층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10층집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놀이감 자동차 위에 올려놓은 햇빛을 따라가는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이께서 지으신 집을 보고 유치원 교양원은 사람이 사는 집을 어떻게 자동차에 싣고 다니겠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5.1절 경축시위를 할 때 자동차 위에 집도 싣고 배도 싣고 가는 걸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교양원은 그것은 작은 집이니깐 싣고 갈 수 있었지만 그이께서 지으신 10층집이야 어떻게 자동차로 끌고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리신 그이께서는 자신만만하게 집도 처음부터 10층짜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 자동차도 지금보다 훨씬 크고 힘센 것을 만들어 내면 10층집도 싣고 다닐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리신 그이의 이 말씀에 교양원은 그이께서 지니시고 계시는 크나큰 담력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이께서 주체37(1948)년 6월, 어머님과 함께 어느 한 조선소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조선소에서는 460톤급 철갑선 신흥호를 무어 바다에 띄우는 침수식이 있었습니다. 어리신 그이께서는 대동강에 보시던 쪽배에 비하면 크고 멋진 배였습니다. 이윽고 배가 바다에 침수되었습니다. 침수된 배가 수평선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배가 바다로 멀리 나갈수록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머님께 저것보다 더 큰 배는 만들 수 없겠는가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바다만큼 큰배를 만들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몽땅 다 잡아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시였습니다.

또 어느날에 있은 이야기입니다. 만경대에 가신 그이께서는 만경봉에 오르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평양쪽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평양에 10층, 20층, 30층 짜리 집도 50층, 100층짜리 집도 지으며 만경봉에서 평양까지 무지개 다리를 놓아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훨훨 날아다니게 하겠다고 하시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보통 유년기 어린이들로써는 생각지도 못할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이께서는 어리실 때부터 크나큰 담력을 지니고 계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린시절부터 지니셨던 크나큰 담력과 강의한 의지는 오늘 그이의 위대한 혁명활동역사 갈피마다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시찰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판문점이라고 하면 조선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찰하신 곳은 적군의 초소로부터 불과 수십미터밖에 안되는 곳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곳에 대한 시찰은 보통사람들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무비의 담력을 천품으로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고서는 할 수 없는 시찰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판문점 시찰에 대해 적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으면 저들의 발 밑에서 원자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고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일이지만 지금 제국주의 연합세력은 사면팔방에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그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했거니와 또 그것을 극복했다는 나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무비의 담력과 강력한 의지의 소유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로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심으로해서 부닥치는 모든 난관을 극복했고 오늘은 강성대국 건설에로 신심 드높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정일**동지는 배짱도 장군의 배짱이고 담력도 장군의 담력이라고 하셨는데 수령님의 이 교시는 백두산형의 장군으로써의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한 칭송의 교시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리셨을 때부터 뜨거운 인간애를 천품으로 지니고 계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 성공적으로 개최하자

지금 대학가들마다는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기약을 안고 그 준비작업으로 끓어번지고 있잖아요. 북녘의 청년학생들과 굳게 손을 맞잡고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려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시간엔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데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학생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이지만 지난 3월에 있은 범청학련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에서는 범청학련결성 10돌을 맞는 올해에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를 기어이 성사시키며 6.15공동선언발표 2돌을 계기로 청년학생통일행사를 특색있게 진행할데 관해 강조되였습니다.

이어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있은 남과 북의 각계 단체대표들의 접촉에서도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를 진행할데 관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은 앞으로 있게 될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를 특색있게 진행하여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해 나갈 의지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과정을 통해 우리 청년학생들이 심장으로 절감한 것이지만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남의 각계층 애국적 민주역량이 굳게 결집될뿐 아니라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해야합니다. 특히 남과 북, 해외의 청년학생들의 3자연대연합의 강화는 범청학련의 위력과 견인력을 백방으로 발양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는 남과 북 청년학생들 상호간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해 뜻과 힘을 합칠 수 있게 하는 민족대단결실현의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지난 기간 우리 청년학생들이 분열주의 세력의 폭압을 박차고 뜨겁게 달아오른 아

스팔트 위를 한치한치 ***로 뚫으며 북녘의 학우들과의 상봉을 그리면서 판문점으로 향한 것도 사선을 헤치고 방북하여 8.15통일행사개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이북 청년학생들과의 우애를 두터이 한 것도 남북의 청년학생들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에 이바지하자는 강렬한 지향에서였습니다.

더욱이 온 민족이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 과감히 나서고 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각 부문별 통일행사들을 성대히 진행하며 여기서 청년학생들이 앞장에 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범청학련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에서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데 관해 강조한 것도, 지난해 통일대회들을 가지고 6.15공동선언에 매진할 의지를 과시한 노동자, 농민들처럼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려는 드높은 투쟁의지의 발현이였습니다.

전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불씨가 되고 횃불이 되려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의지를 과시할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 그 의미 깊은 통일축제한마당이 하루하루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이번 행사의 성공적 보장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야 할겁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 청년학생들이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가 갖는 중요성을 바로 아는 것은 이번 행사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가 북의 청년학생들과 상봉하는 단순한 만남의 장이 아니라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통일행사의 일환이며 남과 북의 청년학생들의 드높은 조국통일의지를 과시하고 그 힘으로 민족대단결실현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의미깊은 통일행사라는 것을 바로 알고 이 행사의 성공적 보장을 위한 준비를 알심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의 중요성에 관해 알리는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이 행사에 대한 각계층 민중의 지지와 굳은 연대를 확보해야 할겁니다.

또한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 통일행사준비작업을 미국과 그 하수인인 민족분열주의세력의 방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인해 열리지 못한 2002년 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을 비롯하여 일련의 통일행사들이 남긴 교훈은 우리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제동을 거는 민족분열주의적 행위를 반대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투쟁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을 휴지화하려는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에 관해 예의주시하면서 사사건건 자각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야 할겁니다. 그리하여 6.15공동선언발표 2돌을 계기로 진행되는 다채로운 통일행사들을 막아보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이 맥을 추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또한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를 높은 투쟁성과로 맞이할 의지를 안고 여러가지 다채로운 운동들을 더 활발히 전개해나가야 할겁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의 요구에 걸맞게 우리 민족끼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할 의지를 안고 반미자주화투쟁, 외세와 공조하는 민족반역배를 척결하기 위한 투쟁, 북침전쟁연습반대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들을 줄기차게 벌여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를 계기로 온 경향에 반미, 반전, 반이회창, 조국통일열풍을 더욱 세차게 휘몰아와야 할겁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이 조국통일운동의 선봉장이라는 사명감을 자각하고 오늘의 하루하루를 높은 투쟁성과로 빛내어나갈 때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겁니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6일~7일

지난 4월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는 정견과 신앙, 피부색과 언어를 달리하는 외국인들과 더불어 수많은 해외교포 예술인들도 참여했어요. 그 뜻깊은 축전무대들에서 해외교포들이 절절한 심정을 담아 그리고 환희에 넘쳐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최근 북에서 나온 가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 노래는 북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겨레가 사는 곳 어디서나 힘차게 울려나오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을 천으로 만으로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노래를 평양방송을 통해 듣고 끓어오르는 격동을 붓에 담아 쓰신 한양대 최모학생의 글 새겨들으며 다시 한번 이 노래 심장으로 불러봅시다. ≪하나≫, 신은경씨 보내드립니다.

≪하나≫, 이는 숫자에서 대단히 작은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숫자를 떠난 사람들의 생활이란 있을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런 것으로 하여 ≪하나≫는 지구촌 사람들이 생활과정에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처럼 ≪하나≫, 이 말을 시대와 역사앞에 받아낸 선사품으로 애용해 사는 민족은 없을 줄 안다.

얼마전 나는 평양방송을 통해 최근 이북에서 새로 나온 노래 ≪우리는 하나≫를 들을 수 있었다.

≪하나 민족도 하나, 하나 핏줄도 하나, 하나 이땅도 하나, 둘이 되면 못살 하나≫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더욱 강렬해지는 민족의 통일기운이 통속적이고 진실한 시적 표현과 절절하고도 열렬한 음악적 선율에 담아 형상한 것으로 하여 노래는 처음부터 나의 심금을 사로잡았다.

노래를 듣노라니 나의 눈앞에는 6.15공동선언에 받들려 서울과 평양, 금강산에서 펼쳐졌던 감동의 화폭들이 그림처럼 안겨왔다.

정녕 그 나날 북녘의 형제들과 어우러져 노래도 함께 부르고 춤도 같이 추고 윷놀이 등 각종 오락행사도 하며 우리 이남민중 모두가 심장으로 절감한 것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우리 민족은 핏줄도 언어도 문화도 하나, 둘이 되면 못살 한 민족이라는 바로 그것이었다.

오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 그 민족이 외세에 의해 국토가 갈라지고 분단민족의 아픔을 반세기가 넘도록 안고 살며 겪어온 고통을 무슨 말로 다 얘기할 수 있으랴.

더이상 분단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 수 없는 우리 민족이다.

지금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북에 대해 ≪악의 축≫이니 뭐니 하는 악담을 늘어놓으며 각종 전쟁연습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다.

한편 이회창을 비롯한 민족반역세력은 권력에 대한 야망을 안고 부시에게 줄서기를 하면서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내외반통일세력들이 몰아오는 분열한파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통일태양의 빛발아래 펼쳐질 통일새봄은 결코 막을 수 없다.

민족의 통일기운이 높아갈수록 이 땅에서는 **김정일**열풍이 더욱 뜨겁게 일고 있다. **김정일**장군님에 관해 전면적으로 수록한 전기형식의 총서 ≪**김정일**≫이 공개출판됐고 주체사상대토론회가 공개적으로 열리고 그분을 소개한 책자들이 인기도서에도 오르는 것이 이남의 현실이다.

지금 사람들은 **김정일**열풍속에 통일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면서 찬란한 태양이 삼천리를 비추어 통일의 아침이 누리에 밝아온다고 외치고 있다. 이같은 의미에서 볼때 가요 ≪우리는 하나≫에는 이북 민중만이 아닌 이남 민중, 아니 7천만 겨레 모두의 심정이 얼마나 진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인가.

정녕 ≪우리는 하나≫ 이 노래는 남북해외 우리 민족이 사는 곳 어디서나 높이 울려퍼져야 할 21세기의 통일찬가라 아니할 수 없다.

그날 나는 평양방송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 노래와 더불어 더욱 의미깊게 펼쳐질 앞으로의 통일행사들에 관해 생각했다.

이 노래 들으며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를 뜻깊게 장식하고 6.15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한 각종 남북공동행사들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앞날을 생각하며 가슴 부풀었다. 이 노래 부르며 시대앞에 지닌 사명과 책무를 다해갈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그렇다. 바로 그 때문이다. 민족도 하나, 핏줄도 하나, 이 땅도 하나,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모든 것이 하나인 한 민족, 우리 민족. 그 민족이 외세에 의해 모든 것이 둘로 나뉘어 반세기가 넘도록 뼈아픈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으니 어찌 분격을 금할 수 있으랴. 그래서 우리 겨레는 소원도 하나, 애국도 하나인 그 하나를 뭉쳐 더 큰 하나를 이루어내자며 ≪하나≫ 이 말을 심장으로 조국앞에 다지는 선서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6일~7일

자주통일의 길은 주체성, 민족성 확립에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통일은 민족최대의 소원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과제는 없다 하겠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우리 민중에게 막심한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는 분열을 끝장내고 우리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걸맞게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주체성을 견지한다는 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운명과 민중의 운명을 민중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간다는 것이고 민족성을 지닌다는 건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걸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간다는 겁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건 조국통일의 근본담보로 된다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그건 우선 조국통일의 본질과 성격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원칙적 요구이기 때문인겁니다. 나라가 분열된 건 미국의 이남강점 결과이고 통일이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는 것도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해 이기적으로 갈라진 영토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는 문제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조국통일위업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적 위업인 만큼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결코 통일의 장애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역사를 통해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성보다 더 클 수 없는 거죠. 같은 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소중히 간직하고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합시켜 통일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바쳐나갈 때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 하겠습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는 건 남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적 여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민족성은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나 매우 중요한 거지만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건 더없이 귀중한 재부로 통일의 정신적 밑천으로 되는 겁니다.

외세에 의해 본의아니게 갈라져 살고 있는 우리 겨레가 민족성을 적극 내세우고 살려나가지 않는다면 전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초를 잃게 되고 민족이 이질화되어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외세에 의해 민족성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주체성,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사활적 요구로 된다는 걸 그대로 실증해준다 하겠습니다.

주체성, 민족성확립이 자주통일의 확고한 담보로 되는 건 또한 그것이 역사에 의해 그 진리성과 활력이 확증된 노선이라는데 있습니다.

일찍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위업을 영도하시는 전기간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고 이북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건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자기의 존엄과 영예, 불굴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칠 수 있게 됐던 거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해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건 위대한 주석님의 일생의 뜻이었습니다.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등 모든 통일방침과 방안들은 다 숭고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애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되고 민족의 통일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진 건 한평생을 통일을 위해 바쳐오신 주석님의 노고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내외 반통일세력의 검질긴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조국통일운동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현실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조국통일실현의 결정적 담보로 된다는 걸 확증해주는 겁니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예지, 현명한 영도력, 고매한 덕망을 지닌 민족의 영도자에 의해 고수되고 구현됩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십여성상 위대한 주석님과 함께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해 오심으로써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의 태양으로 온 겨레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계십니다.

주석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라도 앞당겨 실현하시려는 건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철의 의지입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식화하시고 그것을 정세가 열백번 변해도 변함없이 확고히 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파란만장의 세파속에서도 민족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셔서 자주통일의 길은 창창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며 그분의 향도따라 통일위업수행에 헌신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민중은 언제 어디서나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해서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완수하고야 말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일

청와대,신문고 통한 민원제기 가로막아

F-15K 도입 재가 거부를 촉구하는 ≪청와대 신문고 두드리기≫ 진행

자통협과 평통사 회원들은 5월 8일 10시부터 대통령에게 F-15K 도입 재가 거부를 촉구하는 ≪신문고 두드리기≫를 진행하였다.

자통협, 평통사 대표들과 회원들은 9시 40분경부터 청와대 옆 무궁화 동산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고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청와대 경비단과 종로경찰서는 홍근수 자통협 의장과 서경원, 변연식 평통사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을 신문고로 접근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정, 이경아, 주정숙, 장도정 회원이 경비대의 봉쇄를 뚫고 신문고까지 도달하였다. 먼저 이경아 회원이 신문고 쪽으로 다가가자 경비단이 이경아 회원을 가로막고 연행했으며, 그 사이에 이수정 회원이 신문고로 올라가 주먹으로 힘껏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청와대 경비단은 이수정 회원과 신문고 옆에 있던 주정숙 회원을 연행하였으며, 그 사이에 다시 장도정 회원이 신문고를 두드리다가 역시 연행되었다.

청와대 경비단과 종로경찰서는 아예 신문고 자체를 봉쇄하였다. 청와대 경비단은 4명의 연행자들을 효자동 영추문길에 내려놓았으며 종로서는 이들이 다시 청와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봉쇄하였다. 연행자들은 긴급히 작성한 ≪F-15K 재가 반대≫ 종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들어갔다.

한편 변연식, 박기학, 박석분 등 자통협, 평통사 회원들은 다시 신문고를 두드리기 위해서 근처까지 진출했다가 연행되어 같은 효자동 영추문길까지 밀려났다.

자통협, 평통사 회원등 10여명은 11시 20분까지 ≪신문고 두드리기≫ 보장을 요구하면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종로서 측은 ≪신문고가 아니다≫고 주장하여 김종일 자통협 사무처장과 동행, 신문고인지 여부를 확인하러 갔다오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자통협 본부에서는 신문고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원비서실에 민원인들에 대한 폭력적 대응에 대해 항의하였다. 그러나 수 차례에 걸친 통화 과정에서도 민원실 담당자는 신문고는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고 현 정부에서는 신문고를 상징적으로 두고 있을 뿐이라며 민원을 회피하거나 국방비서실로 접수시키라는 등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자통협과 평통사는 국방비서실에 민원을 접수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공문을 보내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접수를 거부하였으며, 급기야는 청와대 방문조차 경비단을 시켜 봉쇄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박순희 대표가 경찰차에 치여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부가 이렇게까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 것이 지금과 같은 국정의 난맥상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서 경비과장은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 자통협, 평통사 회원들을 연행하겠다고 협박하고, 종로서장은 ≪청와대에 못간다, 신문고는 두드릴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 한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자통협, 평통사 회원들은 신문고 두드리기조차 허용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F-15K 선정을 재가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오늘의 ≪신문고 두드리기≫를 마무리하였다.

김기호기자
시민의 신문 2002/05/08

신자유주의 물결 앞에 문화주권 지켜낸다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공식 출범

국제무역, 시장논리에 지배받지 않는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국내외적으로 태동하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문화예술인 및 시민들의 문화자주성을 수호하는 국제 문화단체인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7일 공식 출범했다. 연대회의에는 스크린쿼터문화연대를 비롯,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출판인회의 등 16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물결은 문화영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시장논리에 의한 고유-전통문화의 정체성 말살이 그것. 철저히 자본에 의해 생산 · 유통 · 소비되는 문화 상품을 만들어 내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패권논리는 전세계적으로 각국의 고유문화를 고사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문화 공공성을 위협하고 문화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난다. 할리우드는 영화시장을 장악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함과 동시에 타국의 영상문화를 흡수, 재생산하고 있다. 홍콩 영화시장의 붕괴 후 할리우드는 홍콩 영화 문화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흡수, 홍콩영화시장을 헐리우드 식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거대자본 미디어에 의해 제작되는 방송을 비롯, 출판 · 공연 · 순수예술 등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가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외교통상부의 경우 문화영역에 대한 이해가 없고 국제 사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문화관광부의 경우 경제부처에 비해 행정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 연대회의는 세계 문화부 장관의 모임인 INCP에 국내 문광부 장관이 참여할 것과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문화정책을 마련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홍미진기자
시민의 신문 2002/05/08

민주화운동 더 이상 왜곡하지 말라!

사회 단체들 민주화 운동 매도 중단 촉구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50여개 종교,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8일 안국역 느티나무 카페에서 ≪5.3 동의대 사건 및 전교조 결성 사건 관련자 민주화운동인정에 대한 경찰 및 수구세력의 전면적 반발≫에 대한 ≪제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공동 기자회견≫이 열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매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27일 5.3 동의대사건 및 전교조결성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발표하자, 곧바로 경찰청 및 경찰간부들 선에서 동의대사건 민주화운동에 반발하고 나섰고, 동시에 전교조건에 대하여서도 교육부 및 정부기관에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조선일보, 중앙, 동아일보 등이 이에 가세함으로써 자칫 민주화운동의 본질과 의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자 민주진영의 정확한 입장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보수언론들이 또다시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진실을 외면한 채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그 당시 희생된 경찰과 구속 및 제적을 당한 학생 모두의 명예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당시 제기된 의혹을 풀기 위한 제반의 방도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직교사의 전원 복직등으로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교총, 사학연합회 등 어용단체들이 궤변을 늘어 놓으며 교단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며 말했다.

참석자들은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의 행태가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로 나아가고 있어 이에 대해 결연히 싸워 나갈 것≫을 밝혔다. 기자회견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단체 대표들을 구성하여 경찰청장 면담을 진행하였다.

김기호기자
시민의 신문 2002/05/07

우리는 정치룸펜이 아니다

노사모회원들, 박원홍 의원 폄하발언에 철야 항의시위중

한나라당 박원홍 홍보위원장의 노사모 폄하발언에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일 한나라당 박원홍 홍보위원장이 주요당직회의를 마친 직후 가진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최초의 자발적 정치인 팬클럽인 노사모를 사이비종교집단, 정치룸펜, 홍위병 등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사모 명계남 대표는 [한나라당 박원홍 홍보위원장 ≪노사모≫ 망언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명백한 왜곡이며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망언이다. 노사모는 4만 회원의 75%가 직장인이며, 10대에서 70대까지 가족과 함께, 원칙과 소신을 지키다 2000년 총선에서 낙선한 한 정치인을 사랑하여 그와 함께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인터넷상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참여민주주의의 새싹≫이라고 하며, 한나라당과 박원홍 홍보위원장에게 ≪노사모≫ 관련 발언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아니면 말고 식≫, ≪치고 빠지기 식≫의 작태로 일관한다면 4만 노사모 회원들은 다시는 이러한 망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강력하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며 한나라당과 박원홍 홍보위원장에게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노사모는 성명서 발표에 그치지 않고 8일 오전부터 대표일꾼 명계남씨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강력한 항의운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박원홍 의원 홈페이지에도 항의의 글을 올리는 등 온/오프를 통해 박의원 발언의 부당성과 근거를 요구하였다.

오후 들어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는 노사모 회원들이 속속 가세하여 저녁 12시 현재 80여 명의 회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박원홍 의원의 발언의 부당성을 공격하였다. ≪우리는 룸펜이 아니에요≫라는 대자보에는 수많은 회원들의 명함이 부쳐져 있었고, 평택에서 올라온 어느 회원은 명함대신 차표를 붙이기도 하였으며, 관계자에 의하면 독일거주 회원들은 명함을 모아 DHL로 보냈다고 한다.

≪박원홍 의원에게 한마디≫라는 대자보에는 점잖은 충고에서부터 ≪쌩쑈하지 말라≫는 격한 언사도 있어 노사모 회원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특히 저녁 이후 퇴근 시간에 맞춰 참가한 회사원 차림의 노사모 회원이 많이 보여 노사모의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등장은 마치 87년 6월혁명을 이끈 넥타이 부대의 재현을 보는 것 같다는 주위의 평가는 노풍이 ≪명예혁명, 시민혁명≫이란 노사모의 자평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이제 박원홍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만약 노사모에 대한 음해성 발언에 대해 노사모 요구수준의 ≪사과≫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발언파문을 계기로 ≪자발적 정치인 팬클럽≫이란 노사모가 과연 ≪사이비종교집단≫ 또는 ≪정치룸펜≫인지 아닌지는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정치사의 오점인 ≪아니면 말고≫는 사라지지 않을까? 그점만 보더라도 노사모의 등장과 역할은 우리 정치문화에 어떠한 경우라도 순기능을 가져올 것이다.

한편 노사모는 한나라당 당사 앞 1인시위는 9일 오후 6시까지 계속할 것이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아울러 노사모 내의 변호사 회원 등을 통하여 민.형사 고발 및 소송까지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져 한나라당 및 노사모의 차후 행동이 주목된다.

대자보 2002/05/08

유권자혁명으로 정치 · 지방자치 개혁 토대 마련할 터

바른선거유권자운동, ≪지방자치 정착과 선거문화 개혁을 위한 유권자대회≫ 개최

서경석 유권자운동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지방선거를 대선을 위한 전초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며 ≪ 지방선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차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공명선거 · 정책선거를 통한 유권자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다≫며 ≪금품향응, 선거부정 등에 의해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과 함께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또 ≪오늘 유권자대회를 계기로 이번 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혁명을 일으키자≫고 말했다.

법타스님 유권자운동 상임공동대표(조국평화통일불교인협의회)는 인사말을 통해 ≪6 · 13 지방선거마저 썩어버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다≫며 ≪공정선거, 바른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반석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희 유권자운동 감사(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 스스로가 정치개혁을 하도록 요구했으나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맡겨둘 수 만은 없다며 유권자가 먼저 바뀌어 정치풍토를 변화시켜 정치개혁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희 감사는 ≪유권자의 한표가 지방자치의 질을 높이느냐 떨어뜨리느냐의 척도≫라며 ≪바른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철영 바른유권자운동 사무처장(경실련 사무총장)은 ≪후보자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후보자들 스스로가 선거출마 하지 못하도록 해 정치쇄신을 일궈내야 한다≫며 ≪유권자혁명을 통해 정치 · 지방자치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으려면 많은 시민이 합리적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른선거유권자운동은 이날 발표한 6 · 13 지방선거 유권자 선언문에서 ≪유권자의 힘을 모아 공명 정대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킴으로써 선거가 후보자들의 정정당당한 정책대결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권자의 냉소와 무관심을 일소하고 지방자치 개혁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2002년 지방선거 유권자운동에 당당히 나설 것≫을 선언했다.

유권자 선언문은 △유권자운동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지방선거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검증 △시민단체, 유권자들과 함께 정책캠페인 전개 △연고주의를 청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모든 부정선거관행 타파≫에 앞장설 것이라고 이라고 선언했다.

바른선거유권자운동은 후보자 정보공개 운동, 정책캠페인 ,유권자운동의 일환인 구청장 초청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신용철기자
시민의 신문 2002/05/08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4)

서론

논제 1 -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논제 2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 논제 3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혁명운동과통일운동의주도역량과방조역량
조선노동당과전위조직
선군혁명과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논제 4 -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논제 5 -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수정

논제 6 - 민족해방혁명의 관점에서 고찰한 미군철거의 의의

논제 7 - 선군혁명전략의 당면목표와 6.15공동선언의 지향

논제 8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위와 임무

논제 9 -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논제 10 -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결론

논제 3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혁명운동과 통일운동의 주도역량과 방조역량

조선혁명의 수령이시며 조국통일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 44(1955)년 4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4월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정권과 사회단체들을 더욱 강화하며 남북반부인민들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역량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시켜 그들을 미제와 리승만도당을 반대하는 전민족적 혁명투쟁에로 궐기시켜야 하며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비단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보위할 강력한 역량으로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역량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시며 통일혁명의 최고영도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이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 전군, 전민을 영웅적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기 때문에 역사에 유례 없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선군-백전백승의 70년, 주체조선의 존엄 떨치시는 백두령장, 노동신문 2001 11 17 재인용)

≪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군사를 중시하고 총대를 강화하였으며 1995년 설날에 다박솔중대를 현지지도하는 것으로부터 선군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선군혁명 천만리-제1편 다박솔언덕에서, 노동신문 2001 12 15 재인용)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이론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을 깊이 연구한 후 발표된 ≪열 가지 논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조국통일운동의 동력과 그 역할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출하였다. ≪열 가지 논제≫는 먼저 지난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번에 발표한 논문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에서는 북측의 혁명역량을 주도역량으로, 남측의 혁명역량을 방조역량으로 이해하였지만, 그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므로 수정합니다. 주도역량과 방조역량은 남측과 북측의 지역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지위의 상이성과 역량의 차이에 의해서 규정되는 역할분담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아야 더 정확합니다.≫(2.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다음으로 ≪열 가지 논제≫는 주체의 역할분담과 역량편성에 대하여 새롭게 해석하면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조국통일운동의 주도역량과 방조역량, 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체의 역할분담이란, 노동계급의 수령을 중심으로 단결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담당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는 통일전선이 담당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를 주도적 역할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방조적 역할이라고 부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는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의 통일체로 존재하지만, 그 혁명을 수행하는 주체의 역할은 주도와 방조로 분담됩니다. 주체가 분리될 수 없으므로, 그 역할도 분담되기는 하나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2.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지금 조선반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역량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하겠습니다. ... 주도역량은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이며, 방조역량은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망라하는 전국적 범위의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연대・집결한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입니다.≫(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조국통일운동의 견지에서 역량편성문제를 살펴보면, 주도역량은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에 따라 연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조국통일역량이며, 방조역량은 6.15공동선언의 기치에 따라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연대・집결한 통일전선의 통일애국역량입니다.≫(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말은, 조선노동당이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앞세우고 혁명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물론 신식민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전위조직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제혁명역량입니다.≫(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조선노동당은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선군혁명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미제에 대한 전략적 공세를 취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혁명무력을 동원하지 못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 즉 전국적 통일전선은 미제에 대한 전술적 공세를 취하는 방조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그렇다면 조국통일운동의 주도적 역할은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 역할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기치로 든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이 담당합니다.≫(4.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그렇다면 조국통일운동의 방조적 역할은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 역할은 우리 나라 전영토에서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들고 투쟁하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담당합니다.≫(4.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둘째로, 전국적 범위에서 노동계급과 농민이 연대함으로써 장차 완성될 노농동맹역량을 주축으로 하여 애국적 민족자본가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연대・집결하여 광대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전국적 통일전선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을 실현하는 전선이라는 것, 그리고 전국적 통일전선의 영도조직은 조선노동당이라는 것입니다.≫(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수정, 보완)

≪둘째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는,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을 주도역량으로 하고, 그리고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연대・집결한 광대한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방조역량으로 하여 자기의 역량을 편성합니다. 또한 조국통일위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기치로 든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조국통일역량을 주도역량으로 하고, 그리고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든 전국적 통일전선의 통일애국역량을 방조역량으로 하여 자기의 역량을 편성합니다.≫(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수정, 보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과업 중의 하나인 국가보안법철폐의 주도적 역할을 누가 수행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최성원동지는 이전 논문들에게 국가보안법철폐의 주도역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열가지 논제≫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없다.

≪국가보안법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있는 세력은 제국주의세력이 아니라 남측의 반통일, 반민중세력이다. 그러므로 남측민족민주전선이 남측의 반통일, 반민중세력을 힘으로 제압하기 전에는 국가보안법체제가 남북(북남)관계의 변화추세에 따라 어느 정도 완화・개편은 될지언정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에 그 선언과 전적으로 모순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강력한 정치투쟁을 벌이는 문제는 이제 남측민족민주전선의 고유한 몫으로 남겨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두 개 전선≫, 5. 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철폐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과 달리 북측의 혁명역량이 주도하고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방조하는 투쟁이 아니라, 반대로 민족민주운동이 주도하고 북측의 혁명역량이 방조하는 투쟁입니다.≫(≪이론문제≫, 9.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진보적 대중정당의 민주개혁은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각종 반민주 악법들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폭압기관들을 해체함으로써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열 가지 논제≫, 10.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

첫째, 하나의 혁명, 하나의 주체, 두 개의 역량, 두 개의 역할이다. 조선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하나이며 조선혁명의 주체는 전체조선민중으로 하나이며 전체조선민중은 주도역량과 방조역량으로 둘이며 역할도 주도역할과 방조역할로 둘이다. 하나의 주체가 두 개의 역량으로 구별되는 것은 하나의 주체 안에 두 개의 다른 역할을 분담하는 지위상, 역량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주체가 두 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두 개의 역량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둘째, 혁명운동과 통일운동의 주도역량은 동일하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역량은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주도역량은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조국통일역량이다. 각각 반제혁명역량과 조국통일역량으로 구별은 되나 본질상 같다. 반제혁명운동을 전개하는 조선노동당, 전위조직과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조선노동당, 전위조직이 같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의 본질에 두 개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째, 혁명운동과 통일운동의 방조역량도 결국 동일하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방조역량은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결집한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이며 조국통일운동의 방조역량은 전국적 범위에서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결집한 통일전선의 통일애국역량이다. 자주적 민주역량의 통일전선과 통일애국역량의 통일전선은 결국 하나의 통일전선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또 통합될 것이다. 결국 두 통일전선의 구별은 본질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전선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과도적으로 구별되는 것에 불과하다. 역시 본질은 하나인데 현상만 다를 뿐인 것이다.

네째,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주도적 역할은 차이가 있다.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은 모두 노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조직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그 역할이 같다. 그러나 조선노동당의 주도적 역할과 전위조직의 주도적 역할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먼저 조선인민군이라는 혁명무력을 조직동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조선노동당뿐이다. 결과 조선노동당만이 조선인민군을 동원한 전략적 공세를 취할 수 있으며 전위조직은 지역통일전선을 통한 전술적 공세만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조선노동당은 전국적 통일전선을 영도하는 영도조직인 반면 전위조직은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영도하는 영도조직이다. 결국 지역통일전선은 전국적 통일전선에 통합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전위조직이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에 결합된 혁명조직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전국적 범위의 노농동맹은 전국적 통일전선의 사회계급적 기초이다.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 조국통일역량은 주도역량이고 전국적 통일전선으로 결집한 자주적 민주역량, 통일애국역량은 방조역량이다. 한편 전국적 범위의 노농동맹은 전국적 통일전선의 사회계급적 기초로서 그 주축이다. 혁명운동이든 통일운동이든 전국적 통일전선의 영도조직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인 조선노동당이고 영도계급은 노동계급이며 사회계급적 기초는 노농동맹인 것이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의 영도적 지위와 노농동맹의 사회계급적 기초라는 원칙은 통일전선운동의 전과정에서 일관되게 견지하여야 하는 전략적 원칙이다. 전국적 통일전선의 사회계급적 기초는 전국적 범위의 노농동맹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통일전선을 건설하는 데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전국적 통일전선인 만큼 그 사회계급적 기초도 북과 남으로 갈라볼 것이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여섯째, 주도역할, 방조역할의 통일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혁명운동이든 통일운동이든 주도역할을 수행하는 주도역량과 방조역할을 수행하는 방조역량은 모두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를 통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에서는 혁명무력과 통일전선만이 아니라 전위조직도 결합되어 있다. 조선노동당은 조선인민군, 전국적 통일전선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전위조직과 지역통일전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통일혁명운동을 영도한다.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이자 곧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영도체계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를 통하여 통일혁명운동을 유일적으로 영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일곱째, 국가보안법철폐의 주도역량은 남측민족민주세력이다. 미군철거의 주도역량이 조선노동당의 반제자주역량이지만 국가보안법철폐의 주도역량은 남측민족민주세력, 곧 전위조직의 지역통일전선이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철폐는 일반민주주의적 개혁과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국가보안법은 지역통일전선이 전국적 통일전선에 해소, 통합되기 이전에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될 과제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구체적으로 민족통일기구수립, 단계적 미군철군의 시점 전후해서 철폐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악법으로서의 측면과 민족해방혁명과의 연관은 이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철폐의 주도역량이 전위조직이 영도하는 지역통일전선이라는 견해는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이라는 정세변화를 반영한 전국적 차원의 역량재편과 관련되어 있다. 현정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역량편성, 가장 과학적인 전략은 혁명기지(북측)의 조선노동당은 혁명무력을 이끌면서 미군철거라는 민족해방혁명의 주된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식민지(남측)의 전위조직은 지역통일전선을 이끌면서 국가보안법철폐라는 민주주의혁명의 주된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조선노동당의 혁명역량은 미군철거를 주도하고 국가보안법철폐를 방조하며 전위조직의 혁명역량은 국가보안법철폐를 주도하며 미군철거를 방조한다. 물론 통일혁명의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노동당과 그 혁명영도체계에 결합되어 있는 전위조직을 전일적으로 영도하시며 미군철거와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계신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87호)

광 고

통일혁명이론연구1

통일여명 편집국 (편집국 보도 88호)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의 발표 이후 조국의 통일혁명정세는 전국적 범위에서 가속도적으로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통일혁명이론에 대한 연구도 하루가 다르게 심화발전하고 있습니다.

통일혁명이론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통일혁명실천도 제대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통일여명 편집국은 이런 이유에서 ≪통일혁명이론연구≫자료집을 연속 발간합니다.

≪통일혁명이론연구1≫은 그 중 통일혁명이론과 관련있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귀중한 노작집입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수령이시며 조국통일의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석님 그대로이신 통일혁명의 최고영도자이십니다.

통일혁명운동은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통일혁명 사상과 전략에 의거하여 승리의 한길로 전진하여 왔습니다.

주석님과 장군님의 통일혁명 사상과 전략, 불멸의 영도업적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석님과 장군님의 노작입니다.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은 통일혁명이론의 진리성을 규정하는 기준입니다.

통일혁명이론의 심오한 이치는 오직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노작을 깊이 연구할 때에만 터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작집이 동지들의 통일혁명이론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